

# “친절·배려로 주민 감동 행정서비스 최선”

### ‘광주 남구 혁신 경진대회 최우수상’ 조경량 민원봉사과 주무관

#### 환한 미소로 민원인과 소통·공감하는 자세 가장 중요 노약자·장애인 등에 ‘Man-to-Man 안내지도’ 제공

“주민들에게 친절히 응대하려는 노력을 좋게 봐주시고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기쁩니다. 더욱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최우수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이 보다 친절할 태도로 민원 업무를 수행하고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최근 열린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조경량 주무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조 주무관은 주민과 직원이 서로 존중·배려하는 친절문화를 정착하고 민원 만족도 97.6점을 달성하는 등 민원인들에게 최선의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 주무관은 “환한 미소로 민원인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민원인 한 분 한 분을 미소와 작은 친절로 응대

하다 보면 자신에게 큰 감동과 성취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민원봉사과에서는 주민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따뜻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친절이 피어나는 남구’라는 비전을 세우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행정 실현과 공무원의 자긍심 고취·동기부여를 목적으로 3개 분야 9개 과제를 선정·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매일 첫째주 월요일 종합민원실에서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방문 민원인들에게 웃음과 친절을 제공하기 위해 스마일 마스크 및 배지를 착용하고 POP글씨를 활용한 친절멘트를 제작·부착해 민원실을 찾는 주민들에게 친절에 대한 민원봉사과 직원들의 마음가짐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 주무관은 “노약자·장애인·임산부·학생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Man-to-Man 빨간편 안내지



도를 작성해드리고 안내요원이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다”며 “민원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 CS전문강사를 초빙해 친절교육을 매 분기 실시하고 있으며, 청사 정문 입구 앞에는 ‘민원인 편의함’을 설치해

수시로 주민 불편사항 및 개선방안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약성 민원에 시달리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심리상담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직원들의 참여 및 만족도가 매우 높아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며 “구청장에 바란다·국민신문고 등 각종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 추천된 공무원에게 친절 관련 문구를 제작·부착한 친절(칭찬)꽃말화분을 전달해 효과적인 친절동기부여 및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는 친절 시책은 민원담당 공무원에 국한돼 있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공무원들의 친절할 태도가 무색하게 화를 내시거나, 불만을 토로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 항상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민원 업무를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민원인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며 “공무원이 앞장서서 주민에게 친절을 베풀고, 주민이 공무원을 칭찬하는 남구 친절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태훈기자

### 하주아 남구의원 ‘성균관장 효부상’ 수상



광주 남구의원 하주아 의원이 최근 공무자탄감 2572주년 기념해 광주향교(전교 김중재)에서 열린 ‘효자 효부 표창식’에서 성균관장 효부상을 수상했다.

하 의원은 “시부모님과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식사하거나 시부모님을 보살피는 등의 모습을 좋게 봐주시는 것 같다”며 “가족애가 조금 더 깊어졌으면 하는 의미에서 상을 준 것 같다. 앞으로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겸손했다.

한편, 하 의원은 인성교육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과 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남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태훈기자

### 김영신 화순전남대병원 사회복지사 ‘호스피스 발진 기여’ 복지부장관상



김영신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 사회복지사가 호스피스 발진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13일 화순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에서 김 사회복지사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그는 말기환자 돌봄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병원 내 완화의료 사업 구축 및 지역사회 호스피스 발전에 기여한 공로다.

특히 지난 12년간 임원형 호스피스 사업을 수행하면서 시설·인력 등 화순전남대병원 호스피스 병동의 기본 체계를 구축하고, 환자 자유회·음악회 등 돌봄 발굴, 원내 호스피스 EMR(전자 의무기록) 개발, 호스피스 병상 확대 등 실무를 담당했다.

김영신 사회복지사는 “호스피스는 말기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하는 돌봄 사업”이라며 “누구도 돌봄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더 나은 호스피스 서비스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연계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 전남도교육청, 메타버스 활용 진로 교육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최근 각광받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진로·진학 지도에 활용하는 등 미래교육에 한걸음 다가서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13일 “최근 도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메타버스(가상공간) 플랫폼을 활용해 진로 기반 학습 설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남대, 광주교대, 전남대 교육문제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이뤄진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가상 공간 내에 실제와 같은 대강당과 13개 전공 체험 부스를 구성해 현장감을 높였다.

학생들은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EBS 유명 강사의 진로진학 특강에 참여하고, 전공 부스 담당 강사에게 직접 질문하고 관련 자료를 탐방하는 등 활발한 상호활동을 벌였다.

디지털 시대의 중심에 있는 ‘MZ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된 이번 프로그램은 비대면 온라인 방식이었지만, 실제 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듯한 효과로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디지털 플랫폼으로의 변화를 넘어 학생들에게 메타버스가 가진 창의성, 도전정신, 소통능력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함으로써 진로개척 역량 함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021년을 전남미래교육 원년으로 삼고 미래형 에듀테크 구축 등 혁신을 넘어 변화와 창조를 이끌어가는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임재만기자



## 담양군 무정새마을부녀회, 사랑의 밀반찬 전달

담양군 무정새마을부녀회(회장 백형숙)가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에게 행복을 전달하는 ‘사랑의 밀반찬’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밀반찬 준비를 위해 최근 성도2리 부녀회장 집에 모인 회원 20여명은 소고기장조림, 멸치볶음 등 밀반찬을 마련해 홀로 사는 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50세대에 전달하고 개인 위생관리 준수를 당부했다.

백형숙 부녀회장은 “코로나19로 다들 어려운 시기지만 힘들어하는 주민들을 위해 직접 시장을 보고 정성스레 반찬을 준비했다”며 “나눔을 실천하는 새마을부녀회가 되도록 회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 대촌중 학부모회, 친환경제품 만들기 등 교육

대촌중 학부모회가 최근 학부모 연수 및 친환경 제품 만들기 활동 등 학부모교육 활동을 진행했다.

13일 대촌중에 따르면 학부모교육 활동에는 1~3학년 학부모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대촌중 무한상상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했다.

오경미 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교와 학부모의 소통을 강조하며 학부모의 자발적인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를 당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부모들에게 감사사를 표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 학부모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을 통해 학부모들은 미래에 우리 자녀들이 겪게 될 기후위기를 짚어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 속 실천 및 대응 방안을 살펴보았다.

또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학부모의 모습을 통해 자녀들과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해 생각하고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구지킴이 시작해볼까요?’ 수업을 진행했다.

학부모들은 수업을 통해 친환경 수세미와 주방비누를 만들며 다시 한 번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실천의지를 다질 수 있었다. /임재만기자

## 한국PD연합회 ‘2021 PD 전국대회’ 목포서 개최

‘2021 PD 전국대회’가 최근 목포문학박람회 기간 중 3일간 목포에서 개최됐다.

한국PD연합회(회장 전성관 MBC PD)는 국내·외 미디어계에서 활동 중인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다. 이번 대회를 통해 문학박람회를 비롯해 목포의 매력과 맛 등 방송 소재를 만끽할 수 있는 목포의 진면목을 카메라에 담았다.

목포시도 한국PD연합회와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며 목포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홍보를 위한 활동을 펼쳤다.

시는 목포 관광을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 SNS 등 미디어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목포=정혜선기자



목포시 관계자는 “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해상 케이블카, 근대역사문화, 맛 등을 널리 알리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 관광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 호남대 ASPHALT, 국제 창작車대회 2개부문 입상

호남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부(학부장 유용민) 자작자동차 ‘ASPHALT’가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열린 ‘2021 국제 대학생 창작자동차 경진대회’에서 2개 부문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한국교통부가 후원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자동차안전학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 호남대 ASPHALT ‘모비딴’이 디자인 부문 우수상을, ‘호미카’가 주행부분 동상을 각각 차지했다.

전기자동차부문 36개팀, 자율주행자동차부문 26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제동 테스트, 가속 테스트, 내구, 짐카나(평탄한 공장에 대단히 복잡한 코스를 설정하고, 그것을 빠져나가는 시간을 다투는 경기)까지 4개 항목에 걸쳐 경기가 진행됐으며 사전에 제출한 기술보고서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팀을 가렸다.

손병래 지도교수는 “수개월간 우리 동아리 학생들이 열정을 불태워 만든 자작차가 좋은 결과를 얻



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있을 영광과 근산대회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ASPHALT 김홍희 회장은 “동아리 학생들과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해 후회없이 경기를 치렀고 두 팀 모두 수상까지 하게 돼 뿌듯하다”고 말했다. 또 모비딴 드라이버로 참가한 우솔휘(4학년) 학생은 “차량에 문제가 생겼지만 포기 않고 차량을 재건해준 팀원들에게 고맙고, 4년간 믿고 응원해주신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임재만기자

## 국립광주과학관-한국과총 ‘과학문화 확산’ 협약

국립광주과학관은 13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광주전남지역연합회와 ‘지역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국립광주과학관 김선욱 관장, 한국과총 광주전남지역연합회 최용국 회장이 참석했다.

협약식에는 ▲전시·교육·과학문화행사 등 과학문화확산을 위한 협력사업의 추진 및 교류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문화 프로그램 공동기획 및 운영 ▲보유 자원의 상호이용 및 양기관 발전을 위한 정보교환 등이 담겨있다.

국립광주과학관은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거점 과학관으로 매년 다양한 과학문화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양질의 과학프



로그래밍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욱 관장은 “광주과학관과 한국과총 광주전남연합회는 과학문화의 확산이라는 공동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함께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 광주교대부설초, 어린이국회 국회의원상

광주교대부설초 어린이국회연구회가 제17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에서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13일 광주교대부설초에 따르면 매년 개최되는 대한민국어린이국회는 17회째를 맞았고, 이번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실시간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됐다.

광주교대부설초 어린이국회연구회 소속 6학년 이호준 학생 등 9명은 ‘애완동물 입양 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해 우수상인 국회의원상을, 임태덕 지도교사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임재만기자



## 상무스타치과-광주검사정비조합 협약

상무스타치과병원(병원장 김은규)은 지난 13일 광주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박영만) 사무실에서 손태복 전무, 임내섭 상무가 참석한 가운데 진료 협력병원 협약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광주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및 가족, 소속 근로자들이 병원 방문 시 진료비 검검과 진료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동수기자

## 결혼

●전용준(광남일보 회장)·김재희(광남문화체육재단 이사장)씨 아들 성모근(썬앤아이 대표), 김희기·이순현씨 딸 영미(삼성전자 미래전략사업부)는 16일(토) 오후 3시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성당(광주 서구 삼우대로 980)·축하해주시는 마음으로 축의금은 대신하겠습니다.